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TEL: (0343)470-3155

법공양 페이지

는 거죠. 그러다보면 '용 너가 형성시켰고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일리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일으키는 것도 너가 일으켜라. 뭐 생각할 게 있느냐.'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이튿날 바로 그냥 한 잠 자고 나면 일어날테죠. 그런데 그것을 아프면 아프다고 집착을 하고 또 의사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걸려서 집착을 하니 이 몸 속의 생명들도 그렇게 알아 듣고선 행하죠. 그러나 사람이 잘못될 수 밖에요. 그래서 모든 게 묘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속에서 '이건 길이 아니다. 저 산꼭대기에 길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생각을 하니깐 믿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뜻이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여자가 길이라고 했으니 저건 길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지만 길이라고 하니깐 한 번 그 뒤에 문제를 좀 알아보자 하구선 길로 올라가서, 까만데 올라서서 보니까 허공만 보이거든요. 허허허허. 허공만 보이니까 어이게 허공길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발달이 된 세상이나 옛날처럼 탐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서 이게 길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가 길이다 이렇다면 생각으로 그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모자라서 거기가 길이라면 그냥 올라갔지만 말입니다. 나 어려서만 해도 그렇게 뚫고 뚫고 했으니 어려서는 일이 많

살아가는 도리가 불법이고 진리죠

13면에서 계속

외나하면 우리 생각이 아주 간편하고 지혜롭게 또 편리하게 옳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능동적으로 편안하게 모두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놓으시면 그게 직통 아주 적합한 애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들리고 어떤 거는 참 참다듬고 잘한다 이렇게도 보이고 어떤 편 아이구 참혹하고 불쌍하다 이렇게도 보이고, 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나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도 수만가지로 모습을 나누는 그런 자연이 모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즉 말하자면 한 발 내려 들어서 보살로 칭하면서 응신이 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응신이 돼 주셔도 그 응신이라는 거는 하나지마는 수많은 이름도 다 보살이라는 이름에서 해결이 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살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한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속에 들어있는 중생들이 파도가 치고 비 바람이 치니까 살려달라고 막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하고 찾는데 어떤 분은 가만히 그냥 태연하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물기를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하니깐 내가 없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가 기울어지면 중생이 되고 여러분의 몸은 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주 평정하게 걸어가는 걸로 알지 마시고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살아 생전에 내가 저 강을 꼭 건너야겠다. 그전에도 말했지만 강을 건너야겠다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물에 들어가면 타 죽는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그건 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 아닌 나는 물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져죽지 않고 건널 때도 한 할 나면 건널고 그럴 거를 생각을 넓게 못하고 모습을 자기로만 아냐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모습을 자기로만 알면은 사단이 복잡하죠.

그리고 또 보살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신장 따로 있고 지장 따로 있고 관세음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면 아주 또 복잡해지죠. 왜 복잡하냐 하면 죽어갈 때도 병 길게 해달라고 한다면 칠성 부처님한테 빌어야 하고 또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한다면 지장보살한테 빌어야 하고 이렇게 갖가지로 해야 하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보세요. 전력창고는 하나예요. 전력창고가 하나라고요. 하나로 돌아간다. 만방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 전력을 꺼내는 창고는 한데 씌우는 여러 가지로 많죠. 다양하게, 그 다양하게 쓰는 거를 우리가 한군데서 꺼내 쓸 수 있으면 별의별 걸 다 한군데서 꺼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도, 부처님이 모든 걸 자유스럽게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문을 열 줄 알고 함이 없이 할 줄 알아야 부처님과 같이 아니게 된다 얘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집의 마음이고 집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못하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하늘을 받칠때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늘을 받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마음의 도리라면 길고 짧음이 없이 들어간다. 이 손가락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의 한생각이, 손가락이 아닌 그 속도가 아주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그냥 한생각에 문자방 너머든 미국이든 다른 혹성이든 똑같이 갑니다. 우리가 살 때는 짧다 길다 못간다 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마는 이 마음의 척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물 속 몇 미터에 들어가야 한다 또는 다른 혹성을 간다 또는 삼천년전을 간다 하더라도 한 찰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구는 나쁘고 다른 혹성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좋고 나쁜 거는 여러분의 공부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써야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바뀌진다고들 얘기하죠. 예를 들어 아주 억울한 법보가 걸리고 싶었다 이렇다면 그 법보를 없애려면 앞서 그 입력된 것을 지우야 되는데 그러면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느냐. 바로 그 입력된 데다가 되놓으니까 앞서서 입력된 건 없어지고 새로운 입력이 자주 들어가서 그 법보는 자주 없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다고는 수없는 겁을 거쳐오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했는데, 무슨 죄를 지으려고 그랬던것도 아니고 죄를 알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는 못살았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어디에 붙을 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하시니까 죄가 있지 죄가 어디 붙을 데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넓게 해보십시오. 암흑속에서 불 하나 켜면 환해질텐데 그 불 하나 켜 줄 몰라서 암흑속에서 허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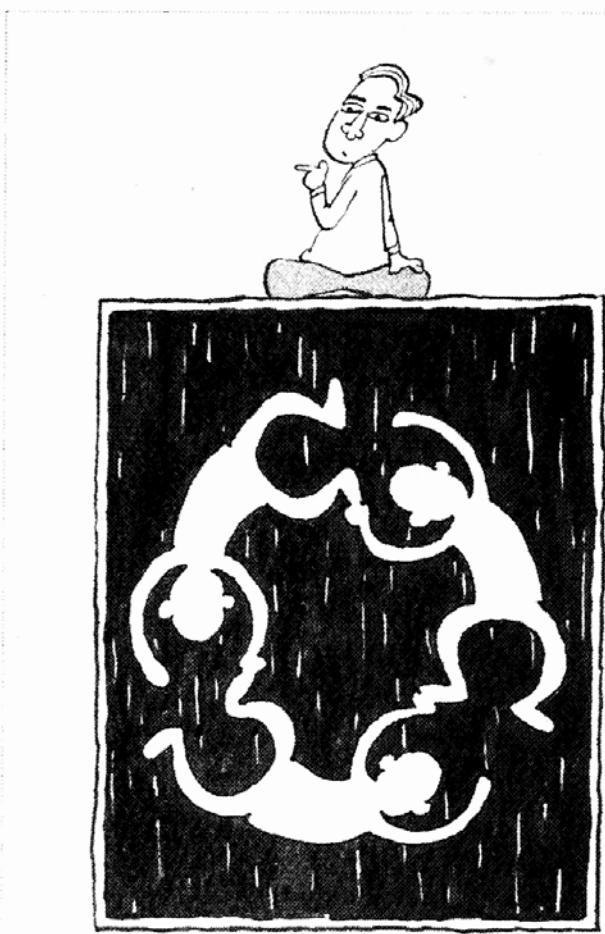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무리 나빠도 나쁜걸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 믿어 좋게 생각하면 좋게 바뀝니다

이것 보질 못하고 이렇게 예를 쓰고 살죠. 그렇다면 그 참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린애들이 보는 만화나 무슨 게임 같은 것들을 보면 전부 상태를 죽이는데 에너지와 쓰고 또 그런 걸 재미있게 봐요. 그런데 우리의 한생각이 죽는 걸 사는 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화나 만화 하나에서라도 전부 살리는 쪽으로 모습을 바꾼다면 참 살기좋은 세상이 되겠죠.

한 가정에 가족이 갖추어서 사는 가정이 있는데 이것이 공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애 아무개야' 부를 때에 '네' 그러고 아들 노릇을 하지 딸 사람 노릇을 하지 않죠. 그렇게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바뀐단 말입니다. 바뀔 때는 보이지 않는 데서 아들로 과거로 그냥 되는 거죠. 그래 '아버지' 할 때는 또 아버지 노릇 하느라고 바뀌죠. 속에서는 바뀌는 거예요. 거죽 모습은 안 바뀌어도, 속에서는 바뀌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여보' 하면은 또 남편 노릇을 하는데도 그냥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도 참나에 바뀌는 거죠. 두고두고 바뀌는 게 아니라 참나찰나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 바뀌는 것마다 가만히 보세요. 바뀌는데 그 어떤 것이 나인가. 내가 아빠로 바뀌었을 때 나라고 할 건가. 남편으로 되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아들로 되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어느 것이 나라고 할 수가 없죠. 한 가정 속에서 아버지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열 식구라면 열 식구에 다 바뀌면서 나투니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도 이렇게 바뀌는 건 아시죠? 바뀐다는 건 사실거예요. 바뀐다는 걸 아시면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도 그냥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방 참나에 바뀝니다. 두고두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생각이 그렇게 바뀔 때에 참나에 바뀌는 거다. 바뀌면서 서서히 좋은 느낌이 온다. 좋은 느낌이 와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좋은 생각으로서, 아무리 나빠도 나쁜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믿어서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주인공! 주인공! 하고 부르지만 그것도 다 알고 보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참 나라고 할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런 약한 일을 제거하고 가는 겁니다.

이 한생각에 나쁘게 될 것이 좋게 된다. 부부지간에도 싸움 일을 '어떡하든지 싸우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한다면 그게 안 싸워져요. 절대로 생각없이 그냥 막 해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싸움이 잦아지죠. 그런데 그 싸움 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평이 거기 붙어 들어간다. 아주 좋은 일

로 인해서 웃고 살 수 있는 화목이 거기에 뒤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요만한 거 하나도 예누리가 없습니다. 보살이라는 이름없는 이름을 가지려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게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수행이 있는데 아주 잠시 이렇게 진실로 해보는 그런 행이 중요합니다. 자기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처음에는 배울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남만 중생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도 중생인 것들을.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할아버지로 계시다가 다시 그 집 손주로 나왔어요. 손주로 나와 가지고선 '이렇게 하면은 아니되는데 이력하면 되나' 하고서는 차곡차곡 어린애가 어른처럼 말을 하게거든요. '이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력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가 그러니깐 '참 잘 말이 좋아. 내 말을 들어서 해나가면 하나도 손색이 없겠어.' 이러지만 그걸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잘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 자식들이 재산을 탐진해 버렸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 다시 그 집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린애라도 자꾸 가르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생각없이 살아가는 안됩니다. 생각이 있으면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절대 안됩니다' 하고 이제 딱치는대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식구가 다

그 애의 말을 듣고서 배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풀이 들어서 식구가 다 마음을 잘 써서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냥 온전히 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뜻을 가지고 부처님은 일대사의 인연을 다 맺으셨죠. 그러기 때문에 배 한무더기를 봐도 그것은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질 수도 있고 할머니 수도 있고 어머니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을 먼저 알아야 이 배 한무더기 놓고 절하는 그 뜻을 알죠.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이 말을 하면 속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만 알아듣지 말고 이 말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이 말의 뜻이 올바르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에 과거의 부처님 법 그 설법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생각해서 생활하는 것도 이게 설법 중에 제일 으뜸가는 설법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지혜있게 살아야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도 이리로 가려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부부지간 싸움 일도 어떡하든 싸우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말기면 금세 화평

가려면 저리로 가요. 왜냐? 사람이 유순하게 이렇게 다르면 그걸 생각을 하고 나가서도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때리고 욕하고 뭐 밟지 다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부모한테는 나가서 생각하기를 오히려 아주 더 빠르게 나가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깐 집안 구석구석이 나빠진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생각 한번 잘 하면은 어머니, 생각 한번 잘 해서 그 잘 하는 생각으로서 이 세상을 모두 살아간다면 나 하나 뿐이 아니라 내 몸통이 속에 있는 생명들도 그 몸을 받아서 모두 건강하고 풍족하고 그런 반면에 속에 있는 내 생명들은 그냥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고 들고 나고 들고 이런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이 생명들이 나고 들고 나고 들고 이래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나쁜 일도 하는가 하면 좋은 일도 합니다.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묘한 사람들이죠. 아주 묘한 사람들이예요.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형성되고 진화됐어도 얼마나 묘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나쁘고 좋은 거는 미리 다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온 그 착 때문에 고집멸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고를 갖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모든게 멀하고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 전자에 이런 이런 일을 하셨다고 수없이 얘기해드려도 여러분은 '부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신이 없어요. 여러분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과 풀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과 풀이 아니요. 또 부처님의 법이 우리들의 법과 풀이 아니라 하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을 지혜롭게 굴러서 잘 살아갈 거를 괜히 과거의 부처님 법이 이랬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거를 들고서 바깥으로만 자기 마음을 돌리시면 여러분은 한발짝도 애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아파서 누웠다 하더라도 그 높게 한 놈이 누구나 하는 얘입니다. 아파서 높게 한 놈이 누구나 그거를 알면은 아파도 웃어가면서 살 수 있

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정신 노력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지혜롭게 사람다운 게 살아가면서 인정있고 이해하고 이런 것만 충분하다면 뭐든지 남을 해롭게 생각을 안하고 좋게 돌려 놓을 수 있죠. 해롭게 생각을 하면 해롭게 이루어지는 거니깐요. 그게 법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지금 당대에 안받아도 요다음에 반드시 인연이 돼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한 말이라도 착이 없지 않다는 거와 착이 있게 말을 하는 거는 아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착이 있게 하는 건 감정이 있어서 그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서 좀 풍족하게 살도록 하세요. 하다 못해 밥 한 그릇에 숟가락을 다섯 여섯개 꽂고 은 식구가 먹는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아주 평화스런 모습으로 부처님이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안 먹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러죠. 저 스님은 항상 부처님 법 얘길 안 하시고 만날 그런 얘기만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사는 게 부처님 법이예요. 무슨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그 도리가 바로 부처님 법이예요. 진리이고요.

참 오를 질문하신 것도 아주 묘하게 질문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 위 법문은 2000년 1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쁘든 안되든 모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이서자